"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신청하세요"

광주시, 65세 미만 2개월간 한시적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200여 명 대상 월 180만원 급여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총 9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200여 명에게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2개월) 일자리를 제공한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다.

참여대상은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기준 월 소득 356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단, 자활근로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일자리를 제공할 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오는 20일까지 광주광역자활센터로,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10월 말까지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기관을 통해 1인당 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기관에는 1인당 사업비 월 45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곳과 저소득층 참여자 선정 현황은 광주광역자활센터(www.gjjahwal.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이나마 공공일자리를 통해 광주시 저소득층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경제적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교육청, 시각장애 학생용 묵·점자 소식지 첫 발행

정보 격차 해소 위해 제작 배포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묵·점자 혼용 소식지를 첫 발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기간행물인 교육소식지 광주교육 '가을호'와 '겨울호'를 묵·점자 혼용본으로 첫 제작,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발행중인 교육소식지 광주교육은 각종 교육정책과 각급 학교의 소식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분기별 40부 씩 묵·점자 혼용본을 발행,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묵·점자 혼용본 '가을호'는 오는 16일, '겨울호'는 오는 12월 중 배포한다.

시교육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부호글자인 점자와 약시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굵고 큰 활자 묵자를 혼용, 이번 소식지를 제작했다.

시각장애학생들은 '가을호'를 통해 무상급식 광주 희망교실·고교 무상교육 등 광주시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 원격수업, 빛고을 독서마라톤 등의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됐다.

한두석 공보담당관은 "이번 묵·점자 소식지 발행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겪는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치매 걱정 없는 담양 위한 '관리자 양성교육'

군민 30명 대상 수료자 실버인지관리사 자격 부여

담양군은 지난 12일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 발열측정,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23일까지 주 3회, 총 24시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치매의 이해, 인지음악, 인지미술, 인지운동, 인지보드게임, 인지회상, 전문강사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필요한 역량을 배우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실버인지관리사 자격이 주어지며,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치매예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대상자 들이 직접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다양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전개하여 치매걱정 없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남구 가족사랑나눔·자활센터, 숲속에 둥지 튼다

노대동에 지상 4층 신축
오는 2022년 7월 준공 목표

광주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 및 자활센터가 숲으로 둘러싸인 노대동 풀빛근린공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 및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전 최종안이 최근 확정됐다.

이번 건축 설계공모전에는 총 10개팀이 참여했으며, 남구는 지난 6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그룹 포에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설계 공모안을 당선작품으로 선정했다.

㈜그룹 포에이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은 도시와 자연을 담은 외부 공간 및 여성과 아동을 위한 가족친화 공간 구성, 자활센터에 들어서는 작업장의 효율적 배치 및 열린 소통을 위한 공간 배치 등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구는 총사업비 82억5,7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오는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가족사랑나눔센터 및 자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김미희기자